반목 광주·전남 다시 상생으로

3조5487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동유치 나서

광주공항 문제 갈등 접고 '힘모으기' 주목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로 삐걱댔던 광주·전남이 다시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를 위해서는 양 시·도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상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청권, 영남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자 광주·전남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우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7년 간 3조54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그 범위를 광역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여건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민선 5기 들어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광주·전남이 국책사업 유치라는 명분을 내걸고 상생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향후 상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다.

이승옥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최근 박 지사가 간부회의를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를 위해 광주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으며, 문금주 광주시 정책기획관 역시 "강 시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를 위해 전남과 공동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꾸준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실무진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광역권과 경쟁을 해야할 광주·전남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봐서는 안 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전을 계기로 광역행정협의회를 강화하든, 별도의 상생기구를 만들든 상생을 위한 논의구조를 확고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1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만나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치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광주시는 김영진(민주당), 이정현(한나라당) 의원 등 정계와 언론계, 학계 등 저명인사들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위원회'도 구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서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기공식 영산강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보존·관리하게 될 국립나주박물관 기공식이 15일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에서 열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임성훈 나주시장, 최인기 국회의원,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이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안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지도읍 9MW급 규모 기공식 … 기업 투자 잇따라

전남도가 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풍력 발전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풍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제 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풍력발전 투자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풍력복합발전㈜은 이날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일대 9MW급(3MW×3기) 규모의 '신안 풍력 복합발전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신안풍력복합발전은 동양건설산업과 포스코 ICT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1년 12월 복합발전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1만8000㎿/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져 인근 5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동양 최대 규모의 24MW급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 풍력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어서 향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를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친 것이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풍력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전남이 국내외 풍력시장을 선점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영광·신안 등 서남권 연안 및 해안·해상에 5GW급 발전단지(육상풍력단지 1GW, 해상풍력 4GW)와 풍력설비 전용산단(231만㎡), R&D센터 구축사업 등을 통해 풍력발전을 지역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5GW 풍력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자치구 경계조정 도심균형발전 최우선"

강 시장, 지역대표 등 참여 위원회 구성 주도적 추진

광주시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 경계조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고 있는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틀이 만들어져 향후 지역국회의원, 지역주민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5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구간 경계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제정된 '광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된다. 행정부시장과 민간인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각 구별 시의원 대표, 지역 대표, 시민사회 및 전문가 대표 등 15명을 정원으로 하는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산하에 균형발전분과위와 도심 공동화 대책위, 구간경계조정분과위 등 3개 분과를 둘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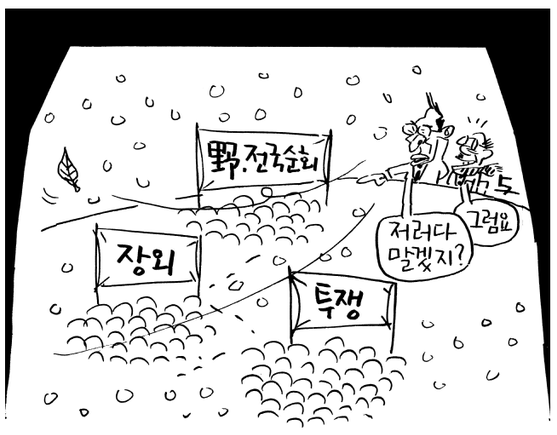
균형발전분과위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도시관련 지표를 조사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도심 공동화 대책위는 아시아문화전당, 문화특구, 2015년 U대회 선수촌, 도시 상징물(어반 폴리, Urban Follies), 도심재개발 등을 점검하게 된다. 구간경계조정분과위는 구세와 인구, 공공서비스, 국회의원 정수 8인 유지 등의 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북구의회 소속 의원 19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불편한 주민생활공간을 해소하고 구간 균형발전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데도 광주시가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주민의견 무시하는 구간경계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추운날씨 덕좀 볼 것 같습니다

무등산 탐방길 트레킹 상품화

광주시 홈스테이·특급호텔 등 시설 갖춰

광주시가 무등산 탐방길 트레킹을 상품화하고 홈스테이와 비즈니스호텔, 특급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구비하는 등 지역 관광경쟁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광주시는 15일 "오는 2015년까지 광주의 관광경쟁력을 전국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0대 시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월봉서원에서 '광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탁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광자원의 명품화 ▲관광자원 간 연계 강화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재미 제공 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무등산 '옛길'과 '무돌길'을 잇는 시티투어 버스를 배치하고 등산객들에게 등산장비를 임대하는 등 무등산 탐방길을 관광상품화하는 한편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5월길 스토리텔링 등 신규 관광자원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1등 맛집' 활성화, 산사체험을 통한 사찰음식, 지역소재 호텔 관련학과·관광호텔·광주시 간 협력체계 구축, 세계적인 축제도시 영국 에딘버러와 매년 1개씩 지역축제 교류 등 구체적인 시책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예산홀대' 화난 여수시민들

박람회 예산 누락 … 국회 등 항의 방문키로

2012여수세계계박람회 예산 반영이 미흡한 데 대해 여수시민들이 궐기대회를 여는 등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여수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민비상대책위'는 15일 오후 여수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700여명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예산 미편성에 대한 여수시민 총궐기대회'를 갖고 "여수박람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여수시가 신청한 박람회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박람회 성공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며 "이는 여수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성공개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는 16~2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을 차례로 항의 방문하는 등 박람회 예산확보 투쟁을 강화키로 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여수버스터미널~박람회장 간 도로개선비, 석창 입체교차로 공사비 등 총 446억원을 요청했으나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육참총장 김상기씨 내정

3군사령관 이홍기씨

국방부는 15일 육군참모총장에 김상기(58·육사 32기·사진) 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포항 동지상고와 육사를 나온 후 육군교육사령부 전력개발차장과 50사단장, 특전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또 이홍기(57·육사33기) 합참작전본부장(중장)을 대장 승진과 함께 제3야전군사령관에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장급 이하 장성진급 인사안을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http://www.t-mong.co.kr
50%~90%
오늘 단 하루! 티켓몽키에서는 40% SALE
기름기 없는 정통 수타 석쇠 피자
광주 전지점 모든 메뉴 40% SALE
수타송 임실치즈피자
전화 주문 배달, 테이크 아웃 가능
수타송 임실치즈피자 치평동 BYC건물 1층 062) 384-0110
오늘 단 하루! 수타송 임실치즈피자 모든 메뉴 자유 이용권 단 돈 12,000원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부동산매각공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 건물내 상가 성업중

○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9타경 35086호(경매24계)
○ 매각대상 부동산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외 6필지 총대지면적 6,189㎡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 752-45 위지상 건물 총연면적 8,828㎡
(태우스파랜드 5층찜질방물건 및 상가다수)
○ 최초법사가 (감정가) : 10,193,861,600원
○ 당회최저입찰가 (5차) : 3,651,224,000원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30일 (목) 10 : 00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농협 채권관리팀(054-777-8130~4)
안강농협 채권관리팀(054-761-4485)
2010년 11월 29일
경주농업협동조합
안강농업협동조합

人事말씀

이번에 大信그룹 創業者이신 故 梁在奉(바오로) 名譽會長 喪事時에 바쁘신 中에도 鄭重한 弔意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찾아뵈옵고 인사드림이 道理이오나 慌忙中이라 于先 紙面을 빌어서나마 머리 숙여 人事를 드립니다.

二〇一〇年 十二月 十六日

未亡人 崔甲順 女 永愛 孫子 洪碩 會金 洪齊
嗣子 會千 龍虎 美卿 洪大 會卿
子婦 文弘根 李魚龍 趙善美 李炫姸 堉羅暎昊 盧貞男 李時榮 李宰源 孫女 榮珉 禎允 禎延 允瑄 允愼 周原

葬禮委員長 : 李義淳
葬禮委員 : 孔甲俊 金泳仁 朴東熹 朴昇 裵昶模 元國喜 張忠植

當社 創業者이신 故 梁在奉(바오로) 名譽會長 喪事時 바쁘신 中에도 不拘하고 베풀어 주신 鄭重한 弔意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二〇一〇年 十二月 十六日

大信證券株式會社
大信資産運用株式會社
株式會社大信經濟研究所
任職員一同